

한국 20 대 여성에는 페미니스트가 많다?

“20 대 여성 10 명 중 4 명 (41.7%)¹”

이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국에서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왜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요? 그 배경에는 2015 년 이후의 한국 사회의 움직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5 년경부터 여성혐오(미소지니)가 문제화 되었습니다². 2015 년 6 월에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 증후군)가 유행되며 해외 여행을 다녀온 한국 여성이 국내로 그 바이러스를 가져왔다는 헛소문이 흘러 인터넷 상에 여성혐오적 언설³이 넘쳤습니다. 이것을 참다못한 여성들이 온라인 사이트 '메갈리아'를 만들고 여성혐오 언설 중의 남녀를 바꾸는 '미러링'⁴ 전략으로 대항했습니다. '메갈리아'는 젊은 여성들에게 위화감에 대해 화를 내도 된다는 것, 여성혐오 언설을 방치하고 허용해 온 사회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⁵.

2016 년 5 월, 20 대 여성이 서울 강남역 부근의 공중화장실에서 낯선 남성에게 살해됐다는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범인은 “평소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했다”라고 범행의 동기를 말했지만 경찰은 정신 질환에 의한 묻지마 살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성들은 이것이 '여성혐오 살인'이라고 하여 추모와 연대의 뜻을 제시했습니다. 여성들은 강남역 10 번 출구 부근에 추모 공간을 마련해 형형색색의 포스트잇에다가 각자 마음을 메시지로 남기거나 '반여성혐오 자유발언대'를 설치해 거기서 자신이 당한 성폭력과 성차별 등의 경험을 고발했습니다. 여성들은 이 사건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여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며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2016년 10월에는 ‘#○○(계)_내_성폭력’이라는 해시태그가 등장되어 각 업계의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고발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⁶. 2016년 10월에는 페미니즘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한국에서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만(제6회 연재 참조), 그 배경에는 이러한 2015년 이후의 한국 사회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

“세상이 나를 페미니스트로 만드는데 어떡해⁷”. 이것은 주로 2018년의 한국을 무대로 남성 주인공의 시점에서 페미니스트가 된 '여자 친구'를 그린 소설 『나의 완벽한 남자친구와 그의 연인』 속의 대사입니다.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의 배경에는 그렇게 만드는 사회의 현실과 거기에 맞서려고 하는 여성들의 힘과 연대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이쿠라 에리이 (고베여자대학교)

¹ 국승민 외 『20대 여자』 참언론 시사 in 북, 2022, p.19. 시사 주간지 '시사 IN'이 2021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한국 전국 만 18세 이상의 남녀 2,4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웹조사에서 “나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라는 항목에 “매우 동의”(16.6%), “약간 동의”(25.1%)로 응답한 사람의 합계입니다. 이것은 같은 응답자의 30대 여성(19.7%)의 2배를 넘고 30대~60세 이상 여성의 평균(23.2%)의 2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² 여성혐오(미소지나, misogyny)란 여성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증오하는 문화적 태도를 말합니다. 2015년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趙慶喜 「韓国における女性嫌悪と情動の政治」 (『社会情報学』6(3)) p.39를 참조하십시오.

³ 예를 들어, 이기적이고 사치스럽고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기생하고 싶어하는 여성이라는 뜻의 ‘김치녀’, 가족이나 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명품만을 갖고 싶어하고 허세가 대단한 여성이라는 뜻의 ‘된장녀’, 육아를 제대로 안 하고 놀러

다니는 해충 같은 어머니라는 뜻의 ‘맘충’ 등의 신조어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말합니다.

⁴ 남녀를 바꿔서 남성 혐오 형태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 언설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폭력적인지를 패러디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항상 가성비만을 생각하고 사는 남성이라는 뜻의 '퐁치남', 육아나 가사노동을 안 하고 방관만 하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허수애비', 가부장적이고 여성혐오적 사고방식을 가지는 남성을 비판하는 '한남충' 등이 있습니다.

⁵ 그 후, ‘메길리아’는 불법 성인용 사이트 ‘소라넷’ 폐쇄 운동을 전개해 나가서 드디어 2016년 4월에 ‘소라넷’은 폐쇄되었습니다(제 16회 연재 참조).

⁶ 자세한 내용은 古橋綾 「現代韓国フェミニズム 第2回 MeToo・私も訴える」 (『Posse』 44、2020年) pp.114-116를 참조하십시오. 한국에서는 2016년 이후에 성폭력 고발이 이어졌지만 #MeToo 운동으로 한국 사회 전체에 알려지기 시작된 것은 2018년 1월에 현직 여성 검사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이후입니다.

⁷ 민지형 『나의 미친 페미니스트 여자 친구 : 민지형 장편소설』 나비클럽, 2019, 35쪽.

【主要参考文献】

국승민ほか 『20대 여자』 참언론 시사 in 북, 2022

趙慶喜 「韓国における女性嫌悪と情動の政治」 『社会情報学』 6(3)、2018年、35-47頁

チョ・ナムジュ著、斎藤真理子訳 『82年生まれ、キム・ジヨン』 筑摩書房、2018年 (原著 :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 조남주 장편소설』 민음사, 2016)

古橋綾 「現代韓国フェミニズム 第1回 #MeTooムーブメント前夜・ミソジニーへの抵抗」 『Posse』 43、2019年、76-83頁

古橋綾 「現代韓国フェミニズム 第2回 MeToo・私も訴える」 『Posse』 44、2020年、114-121頁

ミン・지ヒョン著、加藤慧訳 『僕の狂ったフェミ彼女』 イースト・プレス、2022年 (原著 : 민지형 『나의 미친 페미니스트 여자 친구 : 민지형 장편소설』 나비클럽, 2019)